

싱가포르를 통해서 본 제주도의 가능성

- 국제자유도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제주인의 가치관 정립과 관련하여 -

정 광 중*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진면목
- III. 싱가포르인의 가치관 형성과 배경
- IV. 제주인의 가치관
- V. 제주도의 가능성
- VI. 나오며 : 진정한 제주인의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I. 들어가며

필자는 몇 년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되었다. 1주일간의 학회대회기간으로 비교적 짧은 방문이었지만, 방문과정에서는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다. 그 후, 연구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현지에서 입수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에서도 국토면적이나 인구로 보아 극히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정부의 강력하고 깨끗한 정치행위나 국민들의 시민의식과 태도를 통해 작은 나라의 위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의 자치화 시대가 서서히 궤도에 오르고 있는 요즘, 제주도는 전국 어느 도시에 못지 않은 힘찬 도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방들이 만성적인 재정적 궁핍으로 각종 사업의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제주도 역시도 그 예외는

*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아니다. 그와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선진시민의식의 결여도 한 차원 높은 생활수준과 문화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있어 재정적 요인에 못지 않은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국내의 많은 지방들은 각기 나름대로 안고 있는 자연적 환경과 인문적(사회적) 환경을 지역발전의 최우선적 조건으로 활용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개발을 전제로 한 재정책보라든지, 지방의 세계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시민들의 선진시민의식과 태도의 함양문제도 모든 지방이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과제¹⁾임에는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경우도 미래의 지역발전과 생활수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은 물론 제주도민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될 여러 단계의 지역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당국은 지역사회의 모든 행정과 제도를 실행하는 주체로서,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지역주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구도속에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²⁾로서의 성장과 위상을 확보하고, 동시에 도민들의 질적 생활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어떠한 과제를 선결해야 하는지 차분히 반성하고 다짐해 보아야

- 1)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시민의식조사에 대한 연구로서는 다음 두 문헌이 참고가 된다. 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21세기연구센터, 1994, 『시민의식 조사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21세기연구센터, 152p. ②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7,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 제주시민의식의 실태와 과제 —제주·서울·동경·북경 시민의식 비교연구—』(학술심포지엄 자료집), pp.1-73.
- 2)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개발과 추진에 대해서는 1999년 3월 30일자 국무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표면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개념 설정이나 개발(추진) 과정, 성공 가능성 등 일련의 동향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분석·검증하는 단계에서 확실히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국제자유도시’의 개념도 정확한 의미와 배경을 전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참고로, 최근 지역신문에 제시된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이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도시공간으로서 국제무역·생산·주거·관광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의미한다.…현실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국제자유도시를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홍콩·싱가포르와 같은 자유항이 국제자유도시에 가장 근접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제민일보, 1999년 3월 31일, 수요일). 이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논고로서는 양덕순, 1999, 「제주도의 세계지향적 국제자유도시」, 『제주도』, 통권 103호, pp.121-131./건설교통부, 1998, 『국제자유도시 개발구상』 등이 참고가 된다.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후반부터 국제자유도시(자유무역항)로 군림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상대적인 비교대상으로 삼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성장을 전제로 한 제주도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후, 제주인(도민) 들의 선진시민의식과 태도함양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II.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진면목

1819년 영국의 행정가 Stamford Raffles경은 싱가포르강 하구를 향해하다가 작은 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발견 당시에는 약 150여 명의 토착민들이 강어귀(Bank)에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을 뿐이었다³⁾. 그 이후 영국의 식민지 도시로서 새롭게 탄생하고, 영국의 자치령과 말레이시아로부터의 분리·독립 등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바로 오늘날 자유(중개)무역항으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인 것이다.

지리적으로 보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641.4km²의 작은 면적과 약 287만명(1993년)⁴⁾의 인구를 지닌 도시형 국가이다. 국토의 면적은 제주도의 1826.6km²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협소한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구면에서도 제주도의 53만 명(1998년)과 비교하면 그 밀도 또한 얼마나 높은 지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국민은 중국계 화교가 77.5%로 가장 많으며, 말레이인이 14.2%, 인도인이 1.1% 등 국토의 면적과는 대조적으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이다⁵⁾. 따라서 다민족 사회라는 이면에는 여러 지역으로부터 제민

3) Ministry of Information and the Arts, 1995, 『SINGAPORE 1994』, Ministry of Information and the Arts, p.27.

4)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1993,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3』,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국내에서 발행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4년도 싱가포르의 인구는 293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는데(통계청, 1995, 『계간 국제통계』, 통계청), 1999년 6월 현재 시점에서는 300만 명을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이해은·정광중·김일립, 1996, 『싱가포르의 도시경관과 그 특색』, 지리학연구, 제27집, pp.77-96.

족의 이주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싱가포르의 일찍부터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민족 국가체제는 언어와 종교에서도 특이한 사회적 배경을 지니게 된다. 공용어만 해도 영어, 중국어(북경어), 말레이어 및 타밀어로 4개의 언어이며, 종교에서도 중국인은 불교와 도교, 말레이인은 이슬람교, 인도인은 힌두교 등 민족에 따른 종교적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⁶⁾.

1960년 이후 도시국가로 성장한 싱가포르는 흔히 한국의 대명사인 '한강의 기적'과도 같은 '싱가포르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⁷⁾. 그리고 최근에는 '홍콩반환'(1997년 7월)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이 이루어지면서 싱가포르의 위상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대개,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싱가포르를 논할 때, 여러 학자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상반된 관점에서 지적하곤 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큰 초점은 강력한 정부주도 하의 경제부흥이며, 부정적 측면에서의 초점은 1인 독재 혹은 1당 독재(PAP : People's Action Party, 인민 행동당)에 의한 국민관리체제를 지적한다.

해방 이후, 한국의 경우도 싱가포르와 비슷한 사회·경제적 체제가 유지되온 까닭으로, 싱가포르에 대한 모든 정보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긍정적인 측면만이 강조되며 소개되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국가로서의 완벽한 모습은 뇌리속에 각인되어 있으나, 사회내부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부정적 측면에서의 1인 또는 1당 독재체제란 1954년에 인민 행동당이 창당되고, 더불어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독립한 이후 현재까지도 오로지 집권당인 인민 행동당에 의해 정부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집권당의 당수는 1992년까지만 해도 줄 곳 리관유(李光耀, Lee Kuan Yew) 수상이었던 것이다⁸⁾.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해석도 시대적·사회적 배경이 전제되었을 때는 학자에 따라 긍정적인 해석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글에서도 제주도와의 비교를 전제로, 싱가포르에 대한 긍정적 측면에서의 해

6) 太田 勇, 1994, 『國語を使わない國—シンガポールの言語環境』, 古今書院(日本: 東京), 268p.

7) 이와 관련하여,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Ezra F. Vogel 교수가 한국을 포함해서 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네마리의 작은 용(The Four Little Dragon)'이라 표현하고 있다(Ezra F. Vogel, 1991, 『The Four Little Dragon』, Harvard Univ. Press).

8) 田村慶子, 1993, 『「頭腦國家」シンガポール—超管理の彼方に—』, 講談社(日本: 東京), 210p.

석을 발판으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과연 싱가포르가 금세기 최고의 발전을 이루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그 첫째의 배경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강력한 정부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⁹⁾.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 정부는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간에 세계최강의 정부로 알려져 있다. 그 만큼 정부가 한 번 계획한 정책은 어떠한 이유나 배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뚜렷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행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결백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¹⁰⁾. 이들 공무원들은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정과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타협할 줄 모르며 정의구현을 위한 청렴성과 결백성을 지니게 된 데에는 정부 정책에 의한 생활보장도 철저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국내에서도 가장 우대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¹¹⁾. 만약, 뇌물수수나 금품수수 등의 부정부패의 기미가 보이면 철두철미하게 공개하며, 또한 확실한 배경과 원인이 밝혀진 후에는 가차없이 사회로부터 척결당하게 된다. 이처럼 싱가포르 정부는 사회의 모범이어야 될 공무원들에게는 그만한 사회적 지위와 보장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사회의 악습을 근절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정부정책은 이외에도 각종 사회적 제도나 관습과도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이쯤에서 차치하기로 한다.

두 번째의 배경이란 시민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주권자인 동시에 의무자인 시민들이 실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배경속에는 막강한 정부의 힘이 작용한다고는 하나, 긍정적인 입장에서 평가하자면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국가정책의 실현에 항상 모범적

9) Shirlena Huang, Peggy Teo and Heng Hock Mui, 1995, 『*Conserving the Civic and Cultural District: State Policies and Public Opinion*』(Brenda S. A. Yeoh and Lily Kong(eds.), 『*Portraits of Places—History, Community, and Identity in Singapore*』, 252p.), Times Editions(Singapore), pp.25-45.

10) 싱가포르의 공무원은 약 69,000여 명(1998년)으로 전 인구의 2.7%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광균, 1999, 『싱가포르—그 나라를 알고 싶다—』, 세훈출판사, p.31.).

11) 실제적으로, 싱가포르의 공무원들은 해당연도의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 모두가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보스체계가 제도로 장치화되어 있다(정광균, 1999, 전제서, p.31.).

인 수행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시민정신이 발휘되는 한가지 사례를 제시하기로 한다. 싱가포르에는 공중도덕과 관련되는 각종 벌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벌금제도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싱가포르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¹²⁾. 휴지조각이나 담배꽂이를 버리면 500S\$(싱가포르 달러: 한화로 약 27만 5천원)이고 노상방뇨도 500S\$이며, 지하철 역내에서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먹어도 500S\$이다¹³⁾. 공공장소에서 칩 빨기, 과자봉지·종이컵 버리기, 또는 과속, 난폭 운전 등은 최대 1,000S\$의 벌금에 해당된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가 도로 횡단자에게 양보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불일을 끝낸 후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도 150S\$를 지불해야만 한다. 벌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팔지도 씹지도 못한다. 제조와 판매 그 자체도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발각되면 무조건 정해진 벌금(최고 2,000S\$)을 내야만 한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껌을 씹지 못하는 나라로서는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으로, 싱가포르는 “클린 앤드 그린(Clean and Green)”이란 슬로건¹⁴⁾이나 “가든 시티(Garden City)”라는 용어가 잘 어울릴 정도로 전세계적으로도 깨끗한 나라라는 지위를 획득하기에 이른 것이다¹⁵⁾.

싱가포르 사회를 이처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면, ‘벌금의 나라(Fine country)’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소나 행위 정도에 따라 항목별로 조목조목 벌금을 부과해놓고 있다. 그리고 벌금액수가 한국의 불법주차나 신호 위반시의 액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무서운 액수의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경찰관이 범법행위를 적발했을 때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식의 한국적 사고방식은 통하질 않는다.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청렴결백한 공무원들이 아닌가. 이러한 벌금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나 반발이 없는 것도 결코

12) 村井 雄, 1990, 『都市國家 シンガポール—豊さと管理の中で—』, 三一書房(日本: 東京), 242p.

13) 벌금 액수는 동일한 과오에 대해서도 정도에 따라 최대 부과금이 정해진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와는 다를 수도 있으며, 본고의 근본적인 목적과도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14) 싱가포르가 ‘클린 앤드 그린 운동(Clean & Green Week Campaign)’ 즉 ‘청결’과 ‘녹색’ 운동을 동시에 전개한 것은 1990년부터이지만, 1960년대 말부터 청결운동(Clean Week Campaign)은 정부차원에서 전개해오고 있었다.

15) 이혜은·김일림·정광중, 1997, 『싱가포르의 문화경관』, 『문화역사지리』, 제9호, pp.27-43.

아니다.

싱가포르의 시민정신은 바로 이 벌금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미련스러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벌금의 액수가 보통수준을 넘기 때문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나 특히 공무원들의 면전에서 휴지조각이나 담배꽂초 등을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주위에 아무도 없는, 단 혼자만의 공간이 허락되었을 경우에는 현행의 벌금제도에 대한 화풀이라도 하듯이 한 번쯤은 슬쩍해 보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내면적 심리이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상상을 쉽게 초월해 버린다.

이 점에 대해서 필자는 싱가포르 국민들의 철두철미한 가치관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곧 시민정신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부 저명한 학자들은 싱가포르인의 국민성을 이루는 가치관의 형성배경 조차도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과 관련시켜 분석하고 있으나¹⁶⁾, 국민성 혹은 시민정신의 형성배경을 반드시 경제적 요인으로만 해석하여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Ⅲ. 싱가포르인의 가치관 형성과 배경

싱가포르인들의 시민정신의 모태가 되는 가치관은 그들의 나라가 형성·독립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이점을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처해 있는 위치적,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과 깊게 관련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먼저, 위치적 측면에서는 싱가포르가 동·서양을 이으며 남반구와 북반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싱가포르의 절대적인 위치적 유리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¹⁷⁾, 싱가포르 시민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그 중요

16) 竹原英司, 1993, 「ホンコンとシンガポール—大國の荒波の中で生きる知恵—」(坂口慶治·植村善博·須原洋次 編, 『アジアの何を見るか』, 279p.), 古今書院(日本:東京), pp.67-74.

17) Lily Kong and Brenda S. A. Yeoh, 1995, 「The Meanings and Making of Place: Exploring History,

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싱가포르 사회가 과거 → 현재 → 미래를 향하여 한층 발전될 수 있다는 사고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시민들의 가치관도 미래를 향한 의지의 실현과 함께 배양된 것이다. 이점은 과거 자신들이 고향을 등지고 싱가포르로 이주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싱가포르 내에서의 오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얻어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역사적 측면에서의 가치관 형성배경은 싱가포르가 과거 영국의 식민지 및 자치령 시대(1819~1955년)나, 혹은 일시적이지만 일제의 점령(1941~1945년 8월)하의 군정 시대, 더 나아가서는 말레이시아로부터의 분리·독립시기(1965년 8월)¹⁸⁾를 거치는 등 일련의 역사적인 큰 사건들과 관련되면서 서서히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 참울했던 시간속에서 민족적인 차별과 학대로 인한 고통과 삶의 과정을 통해 민족적 자존심을 키울 수 있었고, 동시에 자신들의 가치관도 끊임없는 도전과 끈기속에서 함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싱가포르가 세계지도 속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기를 갈망했고, 팔레스타인들의 역사처럼, 자신들의 생활 거주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싱가포르인들의 가치관은 자신들의 이상향을 자신들의 의지에 의하여 구체화시키고 또한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잉태된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가치관 형성배경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울 겪는 동안에, 자기자신(이주 1세대)과 가족들이 사분오열되고 동시에, 향후에 자신의 삶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개인적 사고가 발전하면서 싹튼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점은 역사적 측면에서의 형성배경과도 깊게 상통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정부의 통치력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활동이 많이 작용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싱가포르 내에서 삶의 터전을 이룬 자신들이 어디까지나 이주민이며 다민족적 사회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탓일런지도

Community and Identity」(Brenda S. A. Yeoh and Lily Kong(eds.), 『Portraits of Places—History, Community, and Identity in Singapore』, 252p.), Times Editions(Singapore), pp.13-23.

18)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싱가포르에 대한 영토소속 관계를 보면, 1945년 8월 일제가 퇴각한 이후는 재차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1955년에는 영국의 자치령으로 바뀐다. 그리고 1963년부터는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존속하다가, 1965년 8월에 이르러 정식으로 분리·독립하게 되었다(이혜은·정광중·김일립, 1996, 전개 논문, p.79.).

모른다. 좁은 싱가포르 사회속에서도 민족별로 거주지가 다르고, 또한 서로의 일터가 달라도 쉽게 집단 싸움이나 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선사상과 미덕을 중요시하는 동양적 사고나 윤리가 바탕이 된 부분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관 형성은 여러 민족들이 제각각 지니고 있는 문화를 존중하는 사고에서 터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족적으로 서로 다른 종교나 생활양식, 관습과 제도, 전통 등을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지닌 그것을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책임을 스스로가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문화를 업신여기거나 경멸하는 일 그 자체는 서로의 문화를 포기해 버리는 것과도 같은 일임을 알게 된 것이다¹⁹⁾. 그런 이유로, 인구 구성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인(화교계)들도 쉽게 소수파인 말레이인이나 인도인의 문화를 경멸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가 최고라고 자부하지도 않는다.

이상과 같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싱가포르 시민들의 가치관의 형성배경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가치관은 조그마한 외부적 요인이나 압력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외부적 요인을 가장 경계하며, 또한 강력하게 통제하여 배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IV. 제주인의 가치관

「제주인의 해민정신(海民精神, Seamanship)—정신문화의 지리학적 요해—」²⁰⁾를 집필한 송 성대 교수는 한 시대를 이끌어갈 특정세대, 혹은 특정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그 모태가 되는 정신문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제주인과 제주지역에 필요한 지역정신은 바로 ‘해민정신’이며, 이 정신은 태풍이

19) 山下清海, 1985, 「싱가포르における華人方言集團のすみわけとその崩壊」, 『地理學評論』, 58-5, pp.295-317.

20) 송성대, 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정신문화의 지리학적 요해—』, 도서출판 제주문화, 466p. 참고로, 본 저서는 1998년에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제주의 해민정신(개정 증보판)—』, 파피루스 출판, 645p. 이란 새로운 제목으로 많은 내용을 추가하여 출판되었다.

항상 발생하는 모진 바다와 화산회토로 이루어진 척박한 토양을 배경으로 삶을 영위해 온 제주 선조들이 지녔던 정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²¹⁾. 송 성대 교수가 주장하는 해민정신은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개개인이 가치관의 정립이 행해졌을 때 전체의 표상으로서 지역정신인 해민정신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에 일어나는 주변의 여러 동향을 살펴보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는 제주지역사회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제주도민들에 의해 자행되는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며, 대단위 아파트 조성에 따른 개인주의의 만연과 함께 정(情)이 메말라 가는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혈연과 지연에 바탕을 둔 필요 이상의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피곤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제주지역사회가 그러한 삶의 공간으로 전락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문제들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체에 제주인 모두는 자신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진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서운 바다를 누비며 생활의 터전으로 삼던 과거의 우리 선조들처럼, 강인하면서도 일관된 정신과 생활태도가 이 시기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바로 개개인의 가치관 정립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지역신문에서는 선진지역사회 및 국제적인 관광도시 제주를 창조하기 위하여, 도민들의 습관과 사회적 병폐 및 악습을 고쳐야 한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다음 아닌 「“2000년 제주…바른 시민’ 이것부터 고칩시다」라는 기사²²⁾가 바로 그것

21) 송성대, 1997, 전개서, pp.432-439 및 정광중, 1997, 「서평: 제주인의 해민정신—정신문화의 지리학적 요해—(송성대 지)」, 『지리학연구』, 제29집, pp.138-139.

22) 제주일보 사회면에 199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게재된 기사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회: 청소년 선도 무관심(1월 1일, 수), 제2회: 난폭운전(1월 4일, 토), 제3회: 잘못된 음주문화(1월 5일, 일), 제4회: 충동 과소비(1월 8일, 수), 제5회: 과열 과외(1월 9일, 목), 제6회: 암채 운전(1월 10일, 금), 제7회: 청첩장 남발(1월 11일, 토), 제8회: 불법 주·정차(1월 14일, 화), 제9회: 실종된 공중 도덕(1월 15일, 수), 제10회: 부끄러운 관람 문화(1월 16일, 목), 제11회: 신고 의식 실종(1월 18일, 토), 제12회: 술집 미성년자 고용(1월 21일, 화), 제13회: 겹부조 폐습(1월 25일, 토), 제14회: 낚시 오물 투기(1월 29일, 수), 제15회: 생활 쓰레기 투기(1월 30일, 목), 제16회: 나부터 작은 실천을(1월31일, 금)

이다.

신문기사의 내용들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오늘날의 제주지역사회가 얼마나 고질적인 병에 시달리며 이질적인 사회로 전락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한마디로, 제주도민들의 가치관이란 땅에 추락되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싱가포르 사회에서 자행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벌칙으로는 곤장, 즉 태형(笞刑, Caning)²³⁾은 말할 것도 없이, 아마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들 기사내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그 실상은 한층 노골화되어 우리를 놀라게 한다. '밤의 고성방가'를 비롯하여 노상방뇨, 길거리 아무데나 침·가래 뱉기, 도박성 퇴폐풍조(화투, 카드, 너뚝빼기(전통적 윗놀이))의 만연 등등,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또한, 알고 있으면서도 늘상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제주도민들의 시민정신은 정말로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자문해 보지만, 현실은 항상 변함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실은 과거에 '우리'를 배경으로 했던 좋은 풍습과 관습이 물질주의에 젖어들면서 서서히 '나'만을 위한 악습과 폐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처럼 제주도민들이 이기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필자만이 느끼는 고민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는 본 논문을 쓰기 이전부터 「지방 자치화 시대의 제주도가 싱가포르를 통하

23) 싱가포르의 벌칙 중에서 태형(곤장, 笞刑)과 관련되는 사건으로, 몇 년전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인 고교생 마이클 페이의 사건은 유명하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여기에 소개하기로 하겠다(박호남, 1995, 싱가포르의 교육제도와 외국어교육 현황, 『해외교육정보』, pp.22-32 및 정광균, 1999, 전개서, pp.42-46.). 이 사건은 미국인 고교생 마이클 페이라는 학생이 동료 미국인 학생들과 거리를 배회하면서, 자동차에 스프레이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하고 계란과 벽돌, 화분 등을 던져 18대의 자동차와 교통표지판 등을 훼손하여, 말하자면 문화 파괴범으로 체포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클린턴 대통령까지 중재에 나서는 촌극을 빚기도 하였다.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는 징역 4개월 태형(곤장) 6대, 벌금 3,500S\$였는데, 문제는 벌금이나 징역이 아니라 인권문제로 비화된 태형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당시 싱가포르 대통령인 옹텡청(Ong Teng Cheong)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끈질긴 중재역할을 했으나, 결국 태형 6대에서 4대로 감하는 조치밖에 취하지 못하였다. 법 집행에 있어서도 만인에게 엄격하고 공정하다는 싱가포르 정부의 위상을 새삼 전세계에 심어준 대 사건이었다.

여, 과연 어떠한 점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가까운 미래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된다면,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시민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인가. 또한, 단순히 제주도가 싱가포르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그저 고개를 저으며 노(No)라고 해서 끝내 버려야 할 것인가」 등 많은 문제를 자문해 보았다.

필자의 결론은, 다름 아닌 싱가포르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확고한 '가치관의 정립'으로 이어진다. 그것도 제주도민들이 스스로가 터득하고 경험하며 쌓아야 될 가치관이다. 아니 어찌면, 과거에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었던 정신을 단지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해야 더 옳을 지도 모른다. 과거에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사고,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민들의 확실한 가치관이 모체가 되었을 때 제주지역사회의 시민정신은 자리잡게 될 것이며, 아울러 송 성대 교수가 주장하는 해민정신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제주도가 싱가포르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치적 역할이나 혹은 각종 정책에 대한 독자적 수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일단 접어두고서라도, 세계속의 제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도민들의 가치관 정립이 확고해야 된다는 것이다. 제주도민들의 가치관 정립은 지방 행정부의 역할에 의해서라든지, 나아가 탁월한 지도자 한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역사회의 주인인 제주도민들 스스로가 쌓아야 함은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다.

제주도민들의 가치관 정립과정은 '내(나)'가 아닌 '우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과거의 인정과 구휼(휼민)정신을 되찾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거듭 지적하자면, 과거에 보편적으로 제주사회에 존재하던 전통적인 가치관을 먼저 되찾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것이다. 개개인의 확고한 가치관이 바탕이 되어 모두의 의식이 점차 개혁되어 나간다면,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도 더욱 구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인 우리 모두가 과거속으로 흘러버린 제주사회의 모습을 새삼 되새기며, 서로의 손을 잡고 독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러한 분위기의 조장이 절실한 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 제주도의 가능성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도는 싱가포르보다도 훨씬 넓은 토지공간을 소유하고 있다. 단순한 논리일지는 모르나 최근의 세계적 추세에 의거하자면, 지역적인 범위가 넓다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세계적으로 제주도나 싱가포르보다 큰 섬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지역적인 범위는 지정확적인 위치와 함께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내재되고 있음을 저변에 깔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는 그야말로 '황금의 거위알'과 같은 존재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싱가포르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제주도는 다음과 같은 지역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함께 싱가포르보다도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로, 살아 숨쉬는 자연적 공간의 존재이다. 아직도 제주도는 전체면적 중 상당한 부분이 자연미를 바탕으로 한 '자연적 공간'이 차지하고 있다. 즉 해발고도 300m를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이상의 중산간 및 산간 지역은 아직도 인간의 손길이 덜 닿은 공간의 대부분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자연적 공간은 오늘날 도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음은 물론, 관광적 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에, 향후 제주도가 근시안적인 발전을 전제로 이 자연적 공간을 인위(인공)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을 경우에는, 제주도의 발전도 그 순간부터 정체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중산간 지역의 골프장 건설이나 오름을 이용한 송전탑 건설, 토사채취 및 인공정원 조성 등 부분적이지만 인공적인 환경변화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²⁴⁾. 어떠한 지역이든 간에, 한번 인공적인 공간으로 개조된 후에는 그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자연적 공간으로의 회생은 불가능하다. 이 점은 도내의 기존개발지역을 비롯하여 반도부의 개발지역들의 사례를 통해 이미 많은 경험을 한 셈이다.

24) 중산간 지역의 인위적인 변화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보면 개인에 의한 경우와 특정 단체 및 기업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서는 토사나 송이 채취, 벌목 등이 많이 나타나고, 후자에서는 골프장 건설, 송전탑 건설, 혹은 생태 관광지화 등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필요한 관광적 차원의 개발도 있을 수 있으며, 지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자본이나 외국자본의 유입을 전제로 지역해제나 허가개발도 뒤따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이전 단계에서 개발전과 개발후에 펼쳐지는 지역의 청사진(Areal blueprint)을 토대로 경제성과 파급효과 등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²⁵⁾. 제주도의 자연이 많이 소실되면 될수록 인공적 공간보다는 자연적 공간의 절대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기후적으로 열대지방에 속해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발우선주의에 집착한 결과, 황금같은 열대성 천연자원(자연)의 대부분을 소실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지금의 싱가포르의 자연적 공간을 인공적 공간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으며, 결국 상대적인 가치도 자연미보다는 인공미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년에 6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은 결국 자연미가 아닌 인공미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며, 이러한 사실은 관광객의 관광행태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²⁶⁾.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시내의 중심부에서 쇼핑과 식음을 중심으로 한 관광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싱가포르 정부가 인공적 활동공간인 주요 건물들 사이를 오가게 하며, 시간과 돈을 소비하게끔 하는 도시관광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⁷⁾.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인공미를 바탕으로 한 도시 관광지는 항상 인간의 욕구를 완벽하게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관광객들의 도시관광에는 한계성이 뒤따르며, 그것은 인간의 심리에서 나타나는 엄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편리성을 추구하는 ‘현대(現代)’를 살면서도 항상 지나 가버린 ‘과거(過去)’를 동경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쳐 버린 과거의 시간과 과거의 공간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

25) 이와 관련하여, 최근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에서 작성한 최초 보고서는 지역사회의 보전과 육성을 전제로 실천사항과 행동지침 등을 밝히고 있어서 상당히 주목된다(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 1999, 『영원히 푸른 섬, 제주』 91p.).

26) 内藤嘉昭, 1995, 「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人口構成と観光特性」, 『人文地理』, 47-5, pp.85-95.

27) 田中恭子・森健, 1994, 「政治と經濟」(綾部恒雄・石井米雄編, 『もっと知りたい シンガポール, 第2版』, 285p.), 弘文堂(日本: 東京), pp.203-254.

다.

제주도민들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제주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내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을 현실적으로 만끽시킬 수 있는 공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경관(Landscape)의 구성체 중 자연적 구성요소가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제주도의 발전 가능성도 한층 커진다는 의미가 된다.

가령, 일시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보려고 개발에 열을 올리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면, 가까운 장래에 그 보다도 더 큰 손해와 피해가 넓은 지역사회로 환연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점은 단순하게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였을 때 초래되는 '환경파괴'나 '환경오염'의 결과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뻔한 이치임에 분명하다.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명언을 되새기며, 자연이 먼저 존재하고 인간이 그에 순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와 남'을 발전시키고, 과거를 뒤돌아보아 후회하지 않는 삶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제주지역사회에는 아직도 '제주(인)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풍양속이 생활저변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신은 최근에 '주냥정신' 및 '수눌음정신' 등으로 집약되어 제주도민들의 사회규범 혹은 생활신조로 삼으려는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생활상을 깨뜨리는 아파트 단지의 조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정신들이 온데간데없이 이미 사라졌다는 지적도 매스컴을 통하여 종종 보도된다.

그러나, 싱가포르인들처럼 애당초부터 고향을 등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회와 비교하면, 아직도 제주사회에는 끈끈한 정(情)으로 이어지는 미풍양속이 그나마 살아 숨쉬고 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제주사회의 전통적인 미덕과 미풍양속이 현재와 같이 주위에게 부담이 되고 피해를 주는 형태로 존속해서는, 오히려 정이 메마르고 짜증나는 사회로 계속해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가 경계해야 한다. 길거리에 나부끼는 '접부조 금지'의 천수막을 볼 때마다 우리 모두는 제주인이기 때문에 더욱 가슴아파 한다. 과거의 미풍양속이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폐습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불필요하다고 '완전금지(完全禁止)'를 외치기보다는 현대적 생활감각에 맞도록 그 대상과 범위를 좁혀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이점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제주도민들의 가치관 정립을 토대로 변화시켜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개개인의 확실한 가치관을 토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미풍양속을 현대의 삶에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를 때에, 그리고 매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주식(濟州式)의 대충주의'를 경계할 때에, 비로소 제주지역사회는 또 한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지금 전세계에서는 종교적 차별이나 민족적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국가적 분열을 초래하는 지역들이 많다. 싱가포르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경우는 그러한 문제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즉, 사회적 결집력이라는 관점에서 싱가포르에 비하면 제주도가 훨씬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역사와 문화적 측면에서도 제주도는 싱가포르보다도 발전적 가능성을 안고 있다. 과거로부터 제주도는 섬(도서)이라는 환경적 특성 아래, 반도부와는 다른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 역사는 면면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역사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지역은 후대에 자랑거리 하나없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이 주변과는 다른 제주도의 역사를 만들어낸 계기가 되었다면, 그 역사속을 살아온 선조들에 의해 제주도만이 필요로 하는 독특한 문화가 창출된 것이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섬(島)'으로서 존재하며 반도부와 인위적인 힘에 의해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령, 반도부와 연결될 기미가 보인다면 제주도의 전통적인 역사와 문화도 그 시점에서 정지해 버리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생생한 역사적 기록들이 고문서(古文書)와 일부 통계로서만 존재하며, 일정시점에서 그 기록들은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반도부와 똑같은 역사와 문화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어설픈 가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싱가포르는 섬으로서의 역사와 문화가 이미 끝나버렸다고도 할 수 있다. 1923년에 완공된 다리 하나로 말레이 반도부와 연결되면서, 이미 섬으로서의 역사와 문화는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다²⁸⁾. 물론, 두 지역이 독립된 국가라는

점에서 항상 인위적으로 통제와 제어가 뒤따르고는 있으나, 역시 섬으로서 지니는 독자적인 전통 중 큰 것 하나는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시점은 한국의 다른 도서지방에다 적용시켰을 때도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7대 도서지방 중에서는 제주도 이외의 거제도, 진도, 강화도, 남해도, 안면도 및 완도가 각기 거제도교, 진도대교, 강화대교, 안면교, 남해대교, 완도대교 등으로 육지부와 연결되어 있다²⁹⁾. 이들 대교의 건설로 인하여 각 섬이 지니는 특이한 문화와 독자적인 역사의 전통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해도 거짓은 아니다. 앞으로 이들 섬 지역은 또 다른 다리의 건설로 섬 지역으로서의 독자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운명에 처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지적하자면, 반도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는 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외부로부터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이미 없는 셈이다. 그 대신,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정도면 제주에 도착할 수 있는 항공로가 개설되어 있으니 더욱 다행스런 일이다. 필자는 이 항공로가 제주의 문화나 역사를 단절시키는 요소로서 작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항공로는 항상 비행기가 드나드는 시간대가 이용가치도 높아진다고 볼 때, 상대적으로 비행기의 이착륙이 행해지지 않는 시간대는 제주도와 반도부의 모든 지역이 일시적으로나마 격리되는 순간이다. 이 순간은 제주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재정리·재정비되어 새로운 형태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나가는 준비의 순간도 되는 것이다.

다소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하면, 오늘날과 같이 하루가 무섭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대교(다리)의 성격과 같이 연속성을 지니며, 흐름을 빠르게 하는 요소들이 더욱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요소들이 어느 순간부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치우친 변화와 변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의 움직임에 대한 경계의 자세도 필요한 것이다.

28) 可兒弘明, 1994, 「風土と地理」(艘部恒雄・石井米雄編 「もっと知りたい シンガポール, 第2版」, 285p.), 弘文堂(日本: 東京), pp.27-76.

29) 이들 도서지역 중 연육교에 의해 가장 먼저 인근 육지부와 연결된 곳은 완도로서 제1교가 1968년 12월에 준공되면서부터이다. 그 후에 강화도(1969년), 안면도(1970년), 거제도(1971년), 남해도(1970년), 진도(1985년) 순으로 이어진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1권, 제5권, 제14권, 제16권, 제21권)).

요약해서 정리하면, 제주도는 역사와 문화적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한 장점은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안고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VI. 나오며 : 진정한 제주인의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1970년대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로서, 국내에서는 최대의 관광지로 부상하게 되었고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가까운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과 유럽에까지도 점차 주목받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항상 끊이지 않는 것은 도내 어디서나 행해지는 바가지 요금과 제주도민들의 불친절이다. 외국 관광객이 줄어들면 줄었다는 원인도 그 첫째는 방금 지적한 두 가지 내용이 주가 되며,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의 부족이나 관광상품의 부족, 그리고 가족단위 위락시설의 부족 등등은 오히려 부차적인 요인으로 등장한다. 말하자면, 제주사회에는 외국인들에게 비치되어야만 될 '질서(秩序)'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면, 위에서 지적한 가치관의 상실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항상 우리 주위의 공중 화장실이 지저분해 지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만을 위한 공간으로 착각하는 데서 나온 결과임을 애써 지적할 필요도 없다.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면, 공중질서라는 단어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차후의 남을 배려하지 않는 기본적인 양심의 결여이며, 그 자체는 곧 자신의 가치관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시민정신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사고하며 지녀야 될 뚜렷한 가치관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정립은 싱가포르 시민들이 강력한 정부의 단속이나 통제에도 항의나 반발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과 같이, 자신들의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잉태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점은, 과거 한국사회

의 생활철학처럼 표현되던 '대(大)를 위한 소(小)의 희생(犧牲)'과도 같은 것이다. 최근,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은 바로 나의 양심과 양보가 전면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거 제주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지역사회의 훈훈한 정과 미덕을 되살리는 일이야말로 제주인(도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진정한 첫걸음일 수도 있다. 나아가, 그러한 자존심의 회복은 제주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성숙된 선진시민의식의 고취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단면이 될 것이다.